카리브 지역의 사회구조 변동과 사회운동연구
—뿌에르토 리꼬와 아이티를 중심으로—

이 남 섭
〈한일신학대 사회학〉

목 차

1.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80년대 카리브지역의 역사적 성격
3. 뿌에르토 리꼬의 구조 변동과 사회운동
4. 아이티에 있어서 구조 변동과 사회운동
5. 결론: 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I.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의 기본목적은 카리브지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기본축으로 하는 최근의 구조변동이 이 지역의 정치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뿌에르토 리꼬(Puerto Rico)와 아이티(Haiti)의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이 지역의 최근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1)]

첫째, 카리브 지역이 세계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지닌 역사적 위치에 있다.

1) 카리브 지역에 대한 국내의 선구적 연구로는 (강석영, 1992), (민만식외, 1993)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아주 조그마한 섬나라들에 불과하나 카리브해는 현대 서구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할 만큼 세계 자본주의 역사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카리브해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시발점일 뿐만 아니라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역사적 고리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독립되지 못한 식민지 국가 상태의 국가들이 존재한다.[2] 두 번째로 쿠바 혁명(Revolucion Cubana) 이후 전개된 카리브해의 현대사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지배체제에 대한 독자적 노선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국가의 발전모델"로서 지난 80년대 카리브해의 경제발전 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Coraggio y Deere, 1986). 경제적 측면에서 카리브지역은 사회주의 경제(쿠바), 시장경제(뿌에르토 리꼬), 혼합경제(자마이카)의 다양한 실험을 거치고 있다(Petras y Correa, 1984).

특히 우리가 뿌에르토 리꼬와 아이티를 주목하려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적 배경이 있다. 첫째, 최근의 아이티 민주화 과정은 지난 동구권의 루마니아 사태만큼 중요한 사건이나 심층적 분석에 기반을 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아이티에서 전개되는 오늘의 정치적 위기는 단순히 "민주 대 반민주"라는 도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

둘째, 뿌에르토 리꼬의 경우는 "민족의 독립과 계급의 해방"이라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94년 뿌에르토 리꼬인들은 민족국가의 독립보다 준 식민지 상태인 "자유연합국가의 유지"를 선택하였다.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아이티와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혁명(1987)이 가능하였으며 왜 뿌에르토 리꼬의 대중은 독립보다 현상유지를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 지역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을 갖게 하였다. 특히 사회구조변동과 사회운동과의 관련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작은 시도이다.

---

2) 영국 속령 6, 화란 속령 2, 프랑스 속령 2, 미국 속령 2, 총 12개의 섬나라가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강석영, 1992:11).

2. 기존연구 경향과 연구방법

카리브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회과학적 연구는 아르투르 루이스(Arthur Lewis)로 대표되는 고전적 경제학의 접근이다. 그는 민족적 관점에서 이 지역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의 연구는 탈식민화가 시작되고, 독립의 과정이 전카리브해에 전개되는 시점에서 카리브해의 독립과 경제발전 가능성에 대한 현실성이 논의되는 지점에 나타났다. 그의 장점은 카리브해를 유일한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포착하였다는데 있다. 특히 제3세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신고전주의 관점을 포기하고 농업경제와 근대자본주의 경제로 대표되는 "이중경제론"을 카리브의 고유한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도시의 "근대부문에 대한 농촌노동력의 무제한적 공급"이라는 이론으로 카리브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의 필요를 강조하였으며 이 입장은 60년대까지 이 지역의 사회과학계를 지배하였다. 뿌에르토 리꼬는 이 이론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대표적 경우로 언급된다. 루이스 이론의 최대의 한계는 실업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그는 카리브지역의 지배엘리트와 국제자본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민족적 이익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Sankatsing, 1990).

카리브 지역에 대한 두 번째 연구방법은 "카리브해의 급진적 학파"(Escuela Caribena Radical)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루이스의 방법적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이들은 웨스트 인디아(West India) 대학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카리브지역의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파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신세계 그룹"(New World Group:Grupo Nuevo Mundo)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도 하는데 이 입장은 이 당시 남미의 "종속이론학파"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이론은 카리브해의 저발전과 식민지 노예시기 동안에 수립된 농장사이의 이론적 연결을 모색하였다. 이 학파에서 중심적인 개념은 "농장경제"(economia de plantacion)와 "종속의 개념"(teoria de dependencia)이다. 이들은 서구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을 거부하면서 제3세계의 경제적 현실은 "농장경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이들의 입장은 정통 맑스주의

3) 에밀리오 펜타호스 가르시아에 의하면 종속의 개념은 뿌에르토 리꼬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며 이 이론은 후에 아시아의 4마리 용에 대한 종속이론 적용무용론으로 발전된다. 에밀리오 펜타호스 가르시아(Emilio

자들에 의해 비판되었는데 그들은 카리브해의 사회구조적 성격규명에 있어 카리브해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과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농장경제론자들은 지나치게 경제주의적인 분석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들은 구조적 불일치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 받고 있다. 이들은 카리브지역을 일련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지배된 "해외경제"로서 인식하였지 제국주의의 세계적 체제안에 지배된 종속적 자본주의 형성의 일부로서 보지 않았다. "농장경제"는 분명히 자본주의의 한 형태이며 국제자본주의의 하위체계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제3세계의 대부분의 경제는 "농장경제"의 경험없이도 "농장경제"의 현상들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본을 그 전체로서 보지 않고 외국자본 그 자체에만 주목을 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방법론적 결점으로는 이들에게는 계급분석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Sankatsing, 1990).

최근에는 이 두 입장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새로운 연구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 방법은 "세계체제론에 의한 사회변혁의 구조적 인식"으로 요약되며 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World System)으로 대표된다. 이 이론의 주요테제는 세계체제는 경제적으로 통일체를 이루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본에 대한 국가와 노동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체제는 16세기에 발생하였고 세 종류의 국가군 —구미의 소수중심국가, 주변부 국가, 반주변부 국가— 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세계체제론을 우리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으로 취하려 한다(Wallerstein, 1985).

II. 80년대 카리브지역의 역사적 성격

1. 카리브지역에서 미국의 대외 정치

19세기말 미국은 카리브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을 미국 안보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하였다(Serbin, 1990). 1898년 미서전쟁을 통하

Pantojàs Garcia, 1989: 135~148).

여 미국이 뿌에르토 리꼬를 장악한 이후 카리브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치는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카리브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대외정책의 핵심적 거점이 되었다(Marinez, 1991: 30~31).

그러나 1959년 쿠바 혁명이 성공한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는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 지역에서 탈식민화운동(proceso descolonizador)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60년대에 4개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였고 70년대에는 6개 나라가 독립을 회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탈식민화 운동은 단지 양적으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70년대 말에는 새로운 혁명운동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3월 그라나다에서 마우리스 비숍(Maurice Bishop)의 지도 아래 "새로운 보석운동"(New Jewel Movement)을 일으켜 에릭 게리(Eric Gairy)의 보수정부를 전복시켰다. 4개월 뒤에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이 아나스타시오 소모사(Anastasio Somoza)의 독재체제를 붕괴하였다. 그리고 4개월 후 수리남(Surinam)에서 데시 보우테레스(Desi Bouteres)의 지도 아래 "하사관 운동"(Movimientos de los Sargentos) 일으켜 좌파적 경향의 사회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Sedoc-Dahlberg, 1990: 17~34).

이러한 상황 앞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이것은 1980년 5월 "산타페 문서"(Documento de Santa Fe)의 발표로 나타났다(Selser, 1990). 이 문서의 기본 방향은 이 지역에서 혁명적이고 민족적 운동을 차단하고 역전시키는데 있었다. 쿠바—그라나다—니까라과의 위협 앞에 관타나모—뿌에르토 리꼬—파나마(Guantanamo-Puerto Rico-Panama)에 있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의 삼각선"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전략 아래에서 미국은 카리브 지역을 최대한으로 군사화하였다.[4]

1983의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CBI 또는 la Iniciativa para la Cuenca de Caribe: ICC)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도전에 대한 리건(R. Reagan)행정부의 경제적 응답이었다. 미국의 정치엘리트들은 그라나다 혁명, 니카라과 혁명, 자마이카의 사회민주당 정부의 출현과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서의 내전을 남북문제라기 보다 동서문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콘트라전쟁과 그라나다의 침공 중미의 군사독재의 유지는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응답이었다(Payne and Sutton, 1993: 281~287). 이러한 사

4) 이 전략은 "저강도 전쟁"(la guerra de baja intensidad)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건은 뿌에르토 리꼬와 아이티의 군사적 통제의 중심지로서 그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말에 와서 미국과 카리브지역 사이의 관계는 급진적으로 전환되어졌다. 냉전은 종식되었으며 미국과 갈등적이었던 카리브지역과 중남미 지역의 정권들은 파괴되었거나 중립화되어졌다. 중미는 이제 평화적 협상단계에 있으며 쿠바는 구소련과의 단절로 심각한 내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카리브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도전하는 전통적인 위협은 없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치적 중요성은 바뀌어졌다. 결과적으로 미국을 위하여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을 지닌 뿌에르토 리꼬와 아이티의 역할 또한 감소되어졌다(Santiago, 1993:10).

2. 80년대 카리브지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

지난 80년대 카리브지역의 자본주의 발전에는 다음 두 가지 기본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는 다국적 자본의 침투와 이를 통한 세계자본주의 경제로의 편입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역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현상(중심부 또는 이웃 "중진 주변부"로의 이동현상)이다(Serbin, 1994). 지난 70~80년대 카리브지역의 구조변동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재조정이 세계경제와의 관계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일방적 지배현상이 나타나며 이 지역의 탈산업화를 주도하고 있다(Pierre-Charles, 1987). 이것은 이 지역 농업과 수공업의 파괴 그리고 농민의 해체를 유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에서의 산업화는 농촌의 과잉인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탈산업화를 고무하며 노동시장의 확장에 따른 제도적 대책없는 무차별한 인위적 도시화의 과정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Lundahl y Pelupessy, 1989). 카리브 지역에서 도시 비공식부문의 팽창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구조 조정에 기인한다.

카리브 지역의 도시화는 세계도시체계와의 관련속에서 이루어졌다. 카리브지역의 도시체계는 다국적 기업의 노동의 지역적 분업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노동과 자본의 포드주의적 협약(Fordismo)에서 초래한 인플레는 심부경제의 생산단가를 상승시켰다. 이 위기에 직면하여 다국적 산업은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주변부와 반주변부로 자본의 이동은 보다 값싼 노동력과 낮은

생산단가를 제공하는 지역을 찾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추구하는 전략의 일환이 되었다. 이 전략은 당연히 중심부 경제의 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하였다. 다국적 산업과 은행은 중심부에서 그들의 활동을 감소하고 주변부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1973년 이후 세계경제에 새로운 세계도시가 출현하게 되는 전체적 배경이 되었다. 자본집중형 제조업 산업이 카리브지역과 같은 주변부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Grosfoguel, 1994:360~361).

세계자본주의 재구조화의 동일한 과정의 일부로서 1973년 이후 미국본토의 노동집중산업은 뿌에르토 리꼬에서 도미니카, 아이티, 자마이카와 같은 새로운 주변부 지역으로 이전되어졌다. 뿌에르토 리꼬는 첨단제조업 산업과 같은 자본집중 산업중심으로 변혁되어졌다. 수도 산 후안(San Juan)은 다른 주변부의 산업화과정을 통제하고 운영하는 반주변부적 세계도시(ciudad semi periferica)가 되었다. 80년대 카리브지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노동의 새로운 분업을 형성하게 하였다. 1973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카리브지역은 농업, 광산업의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경제였다. 1973년 이후 자본주의의 재구조화는 카리브지역안에 새로운 노동의 국제적 분업을 창출하였다. 카리브지역의 나라들은 이제 제조업 부문의 상품을 가공하고 수출한다. 아이티의 수도인 뿌에르토 프린시페(Puerto Principe)와 같은 주변부도시는 노동집약형 산업화 도시를 형성한다면 뿌에르토 리꼬의 산 후안(San Juan)은 자본집중의 금융집중형 도시로 전환되었다.

지난 1973년의 석유 위기는 한편으로 세계자본주의로 하여금 그들의 축적모델을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립하도록 요청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커피와 사탕수수와 같은 농업생산물 가격의 폭락은 카리브지역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 지역의 국가와 자본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80년대 카리브해의 구조변동은 이러한 맥락속에서 전개되어졌다(Ferguson, 1993).

III. 뿌에르토 리꼬의 구조 변동과 사회운동

1. 뿌에르토 리꼬 자본주의의 역사적 성격

뿌에르토 리꼬는 카리브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근대 식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 지배와 복종의 가장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이 작은 섬의 모든 구조는 미국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되게 변화되어졌다. 뿌에르토 리꼬의 자본주의 발전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외일 수 없다. 사실상 "자유조합국가"(Estado Libre Asociado) 또는 "미국의 자치령"(Commonwealth)이라는 정치적 형태도 카리브지역에서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지배형태의 가장 발전된 모습이라는 비판을 제기받았다(Caban, 1984).[5]

뿌에르토 리꼬의 자본주의 발전은 다음의 두 역사적 시기로 나누어진다.[6] 하나는 "농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고전적 식민지의 자본주의 발전시기와 다른 하나는 60년대 이후 시작된 산업화를 통한 근대적 자본주의 구조의 발전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

5) 현대 뿌에르토 리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묘사한다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지난 20세기 이 나라의 역사는 모순과 복잡함으로 가득차 있다. 무엇보다도 두 개의 상반된 해석이 있다. 첫째는 뿌에르토 리꼬를 "카리브해의 낙원"으로 간주하는 해석이 있다. 진보와 근대성이 전통적 역사와의 조화속에 균형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해석한다. 뿌에르토 리꼬는 저발전에서 탈출하여 사회변화와 발전을 이룬 대표적 예로 소개한다. 이 입장은 외형적인 양적 성장에 근거한 성공적인 지수를 열거하기를 좋아하며 그것은 주로 삶의 편리함의 증가, 높은 취학률, 질병의 퇴치, 광범위한 공공시설의 존재, 포장도로, 고속도로, 높은 건물과 같은 외형적 변화를 제시한다. 또 다른 입장은 뿌에르토 리꼬는 미래의 나라 또는 불확실한 나라로서 사회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가치의 상실과 집단적 행동의 의미를 상실한 식민지로 묘사한다. 이 입장은 다른 수치를 내세운다. 갈수록 높아가는 범죄율, 사회적 격차의 심화, 마약중독, 국가기구의 비효율성, 공공기관의 부패, 주민의 일반화된 불신을 지적한다. 이 입장은 뿌에르토 리꼬 사회의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추구한다(Rivera, 1992: 269).

6) 에밀리오 판토하스 가르시아는 뿌에르토 리꼬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크게 다음의 4단계로 나눈다. 1930년대까지의 사탕수수 단일경작단계; 1940년대 이후 1960년대까지의 자본과 노동집중에 기반한 수출경제전략단계; 1960년대 후반 이후 70년대 후반까지의 다국적 기업의 수출주도 경제전략; 마지막으로 70년대 말 이후 지금까지의 고도금융산업 중심전략으로의 구조 재조정 단계로 나눈다(Pantojas-Garcis, 1990).

위한 뿌에르토 리꼬에 식민지 국가의 팽창을 고무하였다. 뿌에르토 리꼬와 세계에서 제국적 자본주의를 재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식민지국가의 구조적이고 기능적 변화가 193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일어났다. 경제적 측면에서 1940년대에 생산공장, 사회보장기구를 포함한 엄청난 규모의 공공부문이 창출되어졌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발전주의전략"을 제시하고 선전하는 새로운 국가기구들이 창출되어졌다. "발전주의"가 새로운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며 국가기구들은 이 이데올로기의 기본적인 선전자가 되었다. 뿌에르토 리꼬의 실험은 저발전의 문제 —영양실조, 질병과 전염병, 문맹, 기본 의식주의 해결— 를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안이었다. 최초의 자치주지사인 루이스 뮤노스 마린(Luis Munoz Marin)의 대대적인 인민주의 운동은 몇몇 미국정치의 핵심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사회변혁의 중심으로서 산업화정책을 수용하였다."산업화냐 죽음이냐"라는 구호는 이 당시 정치계를 휩쓴 구호였으며 새로운 대안의 주춧돌이 되었다. 인민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정당인 인민민주당(Partido Popular Democratico:PPD)은 "사회정의"와 "경제발전"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장미빛 미래에 대한 제시는 가난한 대중에게 아주 매력적인 구호가 되었다.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은 제조업의 팽창에 기초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중심적 목표로서 미국 민간자본의 막대한 투자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 전략은 후에 "자조자립정책"(Operacion manos a la obra 또는 Operation Bookstrap)으로 알려졌으며 제조업부문의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농업과 산업 도시와 농촌의 비율이 전환되어졌다.

60년대 이후 뿌에르토 리꼬는 사탕수수에 기반을 둔 농업경제구조는 몰락되어 갔으며 다국적 기업의 자본투자와 첨단기술산업에 기반을 둔 근대산업이 이를 대치해 갔다.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중심부의 경제적 필요, 특히 금융자본의 고도의 집중력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부의 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새로운 국제적 분업의 결과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뿌에르토 리꼬의 자본주의는 외형적 성장을 가져왔으며 상대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이것이 1940~1968년까지 민중주의 경향의 인민민주당(PPD)이 장기 집권(28년)할 수 있는 기반과 뿌에르토 리꼬 "경제기적"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Rivera, 1992:271).

1950~1970년대에 뿌에르토 리꼬는 라틴아메리카에 미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산업을 위한 주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낮은 임금, 미국시장과의 가까움, 관세면제, 연방정부 세금면제, 강력한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정치적 안정은 많은 미국투자가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불러 일으켰다. 1970년에 농업생산은 아주 감소하였으며 뿌에르토 리꼬는 산업도시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1973년의 석유위기는 세계경제와 섬의 관계를 변혁시켰다. 대부분의 노동집약산업은 뿌에르토 리꼬보다 더 싼 임금을 제공하는 주변부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예를 들면 1970년대 후반에 도미니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뿌에르토 리꼬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34%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실업률은 1970년에 10.3%이던 것이 1977년에는 2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3년에서 1977년 사이에 성장은 한편으로는 석유위기와 뒤이은 세계적 불황으로 인하여 극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섬은 한편으로 덜 경쟁적이 되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두배로 증가하였다. 높은 임금인상율과 높은 최저임금은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의 성장에 둔화를 가져왔다. 농업노동은 엄청나게 감소하였다. 쿠바의 친소적 모델에 대항한 미국의 발전모델의 상징적 진열장으로서 뿌에르토 리꼬는 "초대 산업화"(Industrializacion por invitacion) 발전전략의 성공을 보장하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뿌에르토 리꼬가 더이상 노동집약의 경공업분야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집약산업발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방향으로의 첫 번째 조치는 1976년에 936법안을 승인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의 투자는 섬에서 연방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 면세제도는 산업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극이 되었다. 약품과 전기와 같은 자본집중의 산업화과정이 전 섬에 확대되었다. 936법은 많은 기업들이 뿌에르토 리꼬의 자회사에 그들의 이익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세탁하는데 사용되었다. 이것은 첨단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서도 일어났다. 미국의 많은 기업과 은행들은 이 섬에 그들의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왜냐하면 뿌에르토 리꼬는 자본주의 진열장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만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전략적 군사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두 번째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것은 이 섬에 미국식량 배급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개인에 대한 연방재정의 보조금이 1973년에 5억 17백만이었다면 1980년에는 25억이었으며 1989년에는 40억이었다. 1973년에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섬의 전체 총생산(GNP)의 8%를 차

지하였고 개인에 대한 연방대체는 개인수입의 10%에 해당하였다. 1980년에는 그것은 국민총생산(GNP)의 23%, 개인수입의 22%였고 1989년에는 GNP의 21%, 개인수입의 21%였다. 1980년에 식품배급표는 전체 뿌에르토 리꼬인의 60%가 사용하였다. 미국과의 식민지적 관계는 뿌에르토 리꼬의 산업화를 도왔다. 이러한 연결로 인하여 섬은 카리브에서 최초의 신흥공업국으로 전환되어졌다. 뿌에르토 리꼬의 발전은 연방정부의 엄청난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뿌에르토 리꼬는 "고립된 식민지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2. 80년대 뿌에르토 리꼬 자본주의의 기본구조

80년대 뿌에르토 리꼬 경제는 오랫동안의 고립정책을 탈피하여 주변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카리브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Heine and Garcia Pasalacque, 1993:198).[7] 1984년의 선거에서 진보당(PPD)의 라팔엘 헤르난데스 콜론(Rafael Hernandez Colon)이 새로운 자치 주지사로 다시 선출되었다. 실업률은 거의 25%에 해당하였다. 로널드 리건의 재선은 뿌에르토 리꼬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섬의 경제에 새로운 어려움을 주었다. 즉 전 카리브지역이 미국시장으로 편입되는 CBI가 1984년에 발효하면서 뿌에르토 리꼬는 종전에 가졌던 이점 —미국시장으로의 무제한한 접근— 을 더이상 누릴 수 없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936법안"의 폐기가 제안되었다는 점이다. 뿌에르토 리꼬를 "카리브화"시키려는 콜론의 정치적 전략은 미국과 카리브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워싱톤과의 협상 끝에 936법안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700억불이 CBI에 투자되었다.

---

7) 야코브센(John Jacobsen)은 현재의 구조 재조정 단계는 영국이 아일랜드에서 추진하는 주변부 후기 산업화 발전전략(Peripheral Postindustrialization)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주변부의 후기산업화 과정은 주변부 자본주의 발전형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첨단기술과 지식 정보산업의 요소를 지닌다(Pantojas-Garcia, 1989 :158~159).

〈표 1〉 뿌에르토 리꼬의 산 후안에서 생산자 고용의 변화

산 업	1970	1980	1989	전체변화
은 행	3,950	5,866	8,310	+4,360
대출업	2,170	3,858	6,226	+4,056
안정브로커	123	94	359	+236
보험업	1,751	2,554	3,672	+1921
상업서비스	6,208	11,498	14,564	+8,356
법률서비스	1,162	1,646	2,003	+841
건축,설계사	2,553	2,918	3,599	+1,046
기타				
전 체	27,161	36,358	48,326	+21,165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1971:1982:1991: Grosfoguel, 1994, p. 374에서 재인용.

1970~1989 사이 산업구조도 크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에 681개의 제조업이 존재하였다면 1989년에는 422개로 감소하였다. 그 대신에 은행은 1970년에 단지 17개에 불과하였다면 1989년에는 90개로 증가하였다. 시티은행, 채이스 맨해튼과 같은 은행이 그들의 자회사를 뿌에르토 리꼬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무역업은 1970년에 263개에서 1989년에는 383개로 증가하였다. 고용구조의 비중에서 금융서비스부문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나(표1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제조업이었다(표2 참고).

〈표 2〉 국내 총생산의 산업별 비중, 1987~1992

산 업	1987		1992	
	$	%	$	%
농업	367	2.3	462	1.4
제조업	5,793	36.3	13,155	38.7
건설, 광산	440	2.8	789	2.3
교통과 다른 공공부문	1,350	8.5	2,841	8.4
무역	2,615	16.4	4,458	13.1
다른 서비스 부문	5,391	33.8	12,265	36.1
국내 총생산	15,956	100.0	33,970	100.0

출처: EIU Country Profile 1994~95, p.37.

뿌에르토 리꼬의 생산과정에서 여성노동력의 참여 비율은 매우 높다. 이들은 주로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빈민지역의 하청공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일(chirpas)에 종사하였다(Petrovich y Laureano, 1986: 265~67).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이 전환은 카리브지역에서 뿌에르토 리꼬의 새로운 역할을 의미한다. 80년대 중반에 뿌에르토 리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1)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것은 갈수록 퇴조기에 있는 미국경제의 변화가 주는 충격에 허약하며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였다; 2) 산업, 상업과 관광업부문에서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계속하여 15% 이상을 지속하고 있었다; 3) 노동력의 참가율은 아주 낮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질실업율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경제의 비공식부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분야에서 이러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었다; 5) 수입의 분배는 갈수록 불평등하며 그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가족의 62%는 빈곤한 조건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엄청나게 심하며 이 지역에서 가난한 자는 전체의 86%에 해당한다. 인구의 60%가 식량배급표에 의존하였다; 6)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높은 인플레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다. 뿌에르토 리꼬는 모든 형태의 소비부문에 있어서 일종의 천국이며 광고산업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인당 지출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은 이러한 높은 소비지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었다. 은행은 위험한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기피하고 고리대금업에 치중하며 이것은 중남미에서 가장 발전한 신용카드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 뿌에르토 리꼬의 일인당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7) 나라경제와 가계의 대외종속(특히 미국에의 종속)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의 완전한 붕괴가 막아지고 있을 뿐이다. 이 지원은 현재 전체 국민총생산의 1/4을 차지한다; 8) 공공부문은 엄청난 관료조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전체고용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9) 관료조직의 비대화로 인해 정부는 갈수록 재정위기를 직면하고 있으며 교육, 건강, 집과 같은 주민의 기본생활에 대한 보조는 감소되고 있다. 당연히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이 최대의 희생자들이었다; 10) 따라서 미국으로의 이민은 대부분의 가난한 가정에게 유일한 탈출구이다.[8] 최근에 이러한 이민의 형태는

8) 뿌에르토 리꼬인의 미국으로의 이민은 1920년에 12,000명, 1945년에 100,000명, 1960년에 887,662명, 1970년에 1,429,396명, 1980년에 200만 명으로 증

전문가와 기술자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웃 섬나라로부터의 불법이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1990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1980~1990년 사이에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인의 이주가 늘었다. 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쿠바와 산토도밍고인의 이민과 지난 90년대 이후 시작된 403,000명이라는 아이티 이민은 그 대표적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가 인구증가율의 절대적 원인이다. 왜냐하면 자연증가율은 감소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침체상황은 뿌에르토 리꼬의 정치사회적 삶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적 긴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율과 실업율은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3. 노동의 새로운 국제적 분업과 이동

뿌에르토 리꼬 경제에서 외국의 노동자 이민은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외국노동자의 대부분은 상업과 서비스직종에 종사한다. 1960년대 이후 수만명의 외국 노동자들이 뿌에르토 리꼬로 이주하여왔다. 역사적으로 외국노동자 이민의 대부분은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며 최근에는 아이티 출신도 증가하고 있다. 1982년의 경제기획원 조사에 따르면, 뿌에르토 리꼬 거주 쿠바인구는 약 18,500명이고 도미니카인들은 16,700명이라고 보고하였다. 쿠바 이민자들은 소매상, 일반서비스업, 통신, 금융, 부동산, 보험과 같은 직종에 집중한다. 뿌에르토 리꼬의 쿠바노동자들은 주로 점원, 지배인, 경영자, 사무직원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쿠바인들은 의사와 건축사와 같은 전문기술직종에서 뿌에르토 리꼬인과 경쟁상태에 있다. 이와 반대로 도미니까인들은 건설, 가사서비스업과 다른 개인적 서비스업종에 취업한다.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외국노동자는 아주 소수이다. 한마디로 외국노동자들은 주로 3차산업 부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이민자들은 뿌에르토 리꼬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시켜 주었다. 쿠바인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상업술을 지니고 있어 기본적으로 숙련기술직에 고용되었다. 대부분의 도미니까인들은 미숙련 기술직종에 취업하였다. 쿠바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하였다. 이 숫자는 멕시코인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Denis, 1978: 177~184).

임금과 좋은 조건의 직종에 고용된다면 도미니까인들은 낮은 임금과 천한 3D 업종에 고용되는 경향이 있다(Duany, 1994: 242). 도미니카인의 뿌에르토 리꼬로의 이민은 1961년 이후 심화되었다. 특히, 1965년의 내전 이후 이민은 증가하였다. 1966년에서 1986년사이 합법적 이민자수는 약 44,000명이었다(Duany, 1991: 16~27). 현재 36,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불법거주자 수는 약 70,000명에서 150,000명이다. 도미니카인 이민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산후안 주변의 수도권 지역이다. 특히 도미니카인들은 수도의 변두리 빈민지역인 산투르(Santur)에 거주한다. 이곳은 도미니카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거의 20년의 이주역사를 지니고 있다(Hernandez Cruz, 1989).

도미니카인들이 이민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이다. 주요한 동기는 단지 도미니카에서의 실업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임금의 격차에 있다. 예를 들어 1987년에 뿌에르토 리꼬의 최저 법정 임금은 도미니카보다 12배나 높았다. 이민의 인구학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여성이 지배적이다. 둘째는 이민자의 대부분은 젊은 성인이다. 21세에서 40세 안팎이다. 셋째, 이민자의 대부분은 농촌 출신이다. 마지막으로 이민자의 대부분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대부분이 중퇴이다. 이러한 이민자의 인구학적 성격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Duany, 1991).

다른 한편 도미니카 남자들은 주로 수공업자, 수선자와 같은 기술직에 취업을 한다.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거리의 잡상인, 건축, 운전과 같은 단순 기술직에 취업을 한다. 역시 성에 따른 노동의 구분이 일어난다. 여성은 가사일, 남자는 거리의 일로 나간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에서 찾아 진다. 고용자의 3분의 1이 자영업에 고용되어 있다. 나머지는 뿌에르토 리꼬, 쿠바, 도미니카, 스페인, 미국인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다. 자영업은 도미니카 이민자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다. 도미니카 이민자들의 노동시장으로 편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한편으로는 이민자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더러운 일과 같은 주변부 직종에 고용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이민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하청업 직종과 같은 경제의 비공식부문에 고용된다. 이 두 경우에서 도미니카이민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뿌에르토 리꼬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저임금 노동계층을 이룬다. 도미니카 이민자들은 뿌에르토 리꼬 노동시장에 풍부한 저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노동자들은 뿌에르토

리꼬에서 비공식부문의 성장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다(Fernandez, 1990).

뿌에르토 리꼬에서 비공식부문의 성장의 이유 중의 하나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법적 보호가 필요없는 노동자를 구하려는 중소기업의 필요에 기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미니카인의 이민은 경제의 비공식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이다. 뿌에르토 리꼬에서 비공식부문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작동해 온 발전모델이 고갈한데 기인한다. 도미니카 이민은 경제의 비공식화를 통하여 뿌에르토 리꼬에서 생산단가를 감소하는데 기여하였다. 노동의 국제적 이동은 카리브해의 경제에 있어서 비공식부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4. 식민지의 딜레마

뿌에르토 리꼬는 식민지 이후 3가지 정치적 경향이 존재하였는데 독립주의자, 자치주의자(자유연합국) 그리고 합병론자(51개 주로의 편입)그룹이 그들이다. 자치론자와 합병론자가 오랫동안 뿌에르토 리꼬 정치를 지배해 왔으며 독립론자들은 극소수를 유지해 왔다. 자치론자와 합병론자들이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막대하게 받았다면 독립론자들은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1952년 이후 자치주의자들이 미국과의 식민지적 관계를 주도해 왔다. 앞의 다른 두 가지 경향의 정당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식민지적 협약을 일단 받아들인다. "합병론자"와 "독립론자"에게 있어서 이 협약은 분명히 식민지 관계라고 못박으나 "자유국가론자"들은 이 협약은 식민지적 경향이 있으나 식민지 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Santiago, 1993). 1952년 7월 25일 미연방국의 일원으로서 뿌에르토 리꼬는 독특한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섬은 지역문제에 관한한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니고 연방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섬은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다. 미국은 국방과 외교를 장악하고 병역제를 의무화하였다. 그 대신에 뿌에르토 리꼬는 식량지원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 연방국회의원에게는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뿌에르토 리꼬인이 미대통령선거권과 다른 주요한 정부각료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는 부정하였다. 1967년 선거에서 61%가 자유연방국의 존속을 지지하였으며 39%는 주로의 편입을, 오직 1% 미만 만이 독립을 요구하였다(Rogozinski, 1994:250).[9] 1992년 5월의 선거에서 뿌에르토 리꼬의 최대정당인 인민민주당

PPD이 합병지향적 성격의 정당인 신진보당(Partido Nuevo Progresista: PNP)에 패배하였다. 1940~1969과 1972~1976, 그리고 1984~1992까지 장장 45년 이상을 지배해온 PPD으로서는 최대의 패배였으며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표3 참고).

〈표 3〉 정당별 투표경향 1967~1993

정 당	경 향	1967	1984	1993
PPD	자치유지	60.5	49.31	48.4
PNP	주로 합병	38.9	45.66	42.6
PIP	독 립	1.0	3.00	4.4

출처: Alex W. Maldonado, "Sobre las elecciones de 1984 en Puerto Rico", Homines, Vol.9, Num.1 y 2, 1985, pp. 235~255; Ruben Davila Santiago y Jorge Rodriguez Beruff, "Puerto Rico. Frente a la nueva epoca", Nuevsa Sociedad, Sept.-oct.1993, No.127, pp.6~12.

선거에서 정당들의 정치적 약화는 이데올로기의 소모에 기인한다. 자유연합국가모델이 전환기적 성격에 있음을 대부분의 정치세력은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모델을 극복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여기서 카리브 지역과의 적극적 연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졌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뿌에르토 리꼬의 출현이 제기되어졌다. 에르난데스(Hernandez Colon)정부는 카리브해와 중미에서의 지역정치에 참여하는데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936 법안"을 위한 금융자원은 카리브지역에 금융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자원으로 전환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투자액은 1991년에 약 8억 8천만 달러가 되었다. 뿌에르토 리꼬는 세팔(CEPAL)에 가입하였으며 카리브지역 경제협력기구인 카리콤(CARICOM)과 다른 지역 기구에도 가입하였다. 카리브지역과의 무역은 1986년과 1991년에 58%(수출) 증가하였다. 1991년에 뿌에르토 리꼬는 25개의 국제협약을 맺었으며 대부분은 이 지역의 나라들과 맺은 협약이었다.

다른 한편 미국의 어려운 재정 적자와 경제위기는 매년 80억의 재정자원의

9) 1976년의 선거에서는 703,936명이 신진보당을 660,801명이 인민민주당을 지지하였다. 독립당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심화되어 식민지 복지국가 정책이 포기될 경우에 독립당의 정책은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부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이 요구되는 식민지와의 관계를 재고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냉전의 종식, 재정적, 경제적 위기 그리고 식민지와의 항구적인 갈등은 미국과 뿌에르토 리꼬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하도록 이끈 요인이 되었으며 국민투표를 향한 준비작업이 되었다. 이리하여 1989년 1월에 헤르난데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회에서 일어났으며 미국의 공화당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미국의원들에게 있어서 뿌에르토 리꼬의 자결은 뿌에르토 리꼬에서의 다수에도 불구하고 주로의 편입을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매년 80억 달러가 소요되는 새로운 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은 분명히 미국상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남부의 공화당상원의 대부분은 주로의 전환을 반대하였다. 뿌에르토 리꼬는 이제 50년대와 같은 저임금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연방노동법의 존재 또한 투자의 매력이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이 섬이 지니고 있던 유일한 이점 —미국시장으로 무관세 침투— 을 더이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PPD가 권력을 강화하고 "고도 금융 산업 발전전략"이 1984년과 1988년의 두 선거에서 승리를 통하여 확립되면서 부시 행정부는 뿌에르토 리꼬인에게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정치적 상태와 자결권을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를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세계정치질서의 새로운 출현이다. 이것은 국제연합(유엔)이 2000년을 "식민주의를 종식하는 해"로 선포하여 미국은 뿌에르토 리꼬에서 식민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공화당의 부쉬는 뿌에르토 리꼬의 "주로의 전환"을 지지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뿌에르토 리꼬의 금융위기는 연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며 따라서 식민지를 유지하는데 높은 비용을 삭감할 필요가 있었다.

1991년 12월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자유연합국가의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개헌안은 다음과 같은 것을 묻고 있었다: 1)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섬의 정치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 2) 식민적 의존없이 자유롭게 섬의 정치적 성격을 선택하는 것; 3) 3가지 정치적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 4)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는 것; 5) 국제적 체육도 포함할 것; 6) 어떤 정치적 선택도 미국 시민권을 보장할 것. 독립당은 예정대로 "예스"(Si)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53%대 45%라는 근소한(100,000표) 차이로 PNP의 "노"가 승리하였다. 이 결과는 예상하지 않은 놀라운 결과였다. 이 실패는 결국 집권당인 인민민주당(PPD)의 패배이기도 하였다. 신진보당이 승리한 것은 이러한 이유 중의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식민지 관계를 조절하려는 중심부자본과 식민지의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식민지의 딜레마"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상태에서 "식민지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Santiago, 1993:10). 식민지를 더이상 원하지 않는 강대국과 식민지가 되기를 스스로 간청하는 상황 이것이 오늘 뿌에르토 리꼬가 직면하고 있는 "식민지의 딜레마"의 일부이다.

5. 식민지 시민사회의 성장과 신사회운동의 출현

노동력 집중 제조업 모델(CI/EP)에서 고도금융산업(HF: the high-finance strategy)전략으로의 전환은 경제구조의 재조정 뿐만 아니라 정치구조의 재구조화를 초래하였다. 오랫동안 뿌에르토 리꼬의 정치과정은 PPD와 NPP의 양당정당구조로 대치되어졌다. 이것은 많은 것을 함축한다. 주민의 정당에의 충성심은 약화되었고 시민사회기구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비록 국가가 계속하여 가장 큰 기업주이긴 하지만 정부정책의 잦은 변동은 당파적 고객주의를 위한 수단이 약화되어졌다. 이것은 고객주의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가와 정당의 힘을 감소시켰다. 정당으로부터의 이탈은 자연스럽게 비당파적인 민간 기구(NGOs)의 성장을 이끌었다(Garcia, 1990:174).

정부와 당이 통제하곤 하였던 기구들은 자신의 자율성과 힘을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뿌에르토 리꼬의 올림픽 위원회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의 보이콧 결정과 식민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섬의 대표를 파송하였다. 보다 작은 예로는,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지역운동 등이 정당과 정부의 영향권 밖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하였다. 비록 이것은 시민운동의 강화와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식민지 시민사회의 힘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대중그룹의 자율적 참여의 과정이 정당의 고객주의적 단계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 그룹들은 식민지 정치와 중앙정치 사이에서 당파적 경쟁관계 또는 모순관계에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환경운동의 경우 사실이다. 어쨌던,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와 정당의 분명한 지배력은 상당히 감소되었다(Quintero Rivera, 1992).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구조의 축은 식민지 상태의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였다. 나라의 경제적 미래는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의 성격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치연합, 주정부, 독립은 새로운 발전 전략을 가정한다. 발전전략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고 정치적 상태는 발전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대중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없는 독립노선은 1930년대 이후 많은 가난한 계층의 수입원에 미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의 압력에 기인하였다(Welendez, 1994).

지난 20년 사이 뿌에르토 리꼬에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사회적 행동과 집단적 성격이 분명하게 규정되는 것은 아니나 "독립운동"과 같은 기존의 정치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문화의 일상성에서 민주화 투쟁을 전개한다(1992:612). 대표적인 운동의 하나로는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주택을 위한 투쟁"을 중심과제로 삼는 도시빈민운동을 지적할 수 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적절한 주택공급 정책의 결여는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주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초래하였으며 이것은 공유지의 불법적 점유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점유는 초기에는 자연적이고 자율적 운동으로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비조직이었다. 그러나 운동이 진행되면서 참여 민주체제의 방식이 운용되는 자율적 조직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 운동의 중요성은 이것이 미국에 거주하는(특히 뉴욕시) 뿌에르토 리꼬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고 또 역으로 미국 내의 운동이 뿌에르토 리꼬 내로 다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Quintero Rivera, 1992: 613).

또 다른 주요한 사회운동으로 환경운동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운동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의 부정적 결과에 우려한 교회의 진보적 그룹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산업선교(Mision Urbana)운동에 그 기원을 지니고 있다. 이 운동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산업단지 지역 내의 공동체에 기술적 자문과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통하여 이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는 전문적 운동단체로 발전하였다. 공동체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이라는 조직적 해결방안은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뿌에르토 리꼬의 환경운동은 아직

은 국가와 경쟁적 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협조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뿌에르토 리꼬의 군사화와 핵무기 저장소화를 반대하는 평화운동과 여성운동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IV. 아이티에 있어서 구조 변동과 사회운동

1. 아이티 자본주의의 역사적 성격

아이티 자본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알렉스 듀피에 따르면 19세기 이후 아이티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는 다음 4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의 무력 점령이전단계; 1920~1950년의 농업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시기; 1950~1960년까지 광산의 지배시기; 1967년부터 조립산업을 통한 산업화 시작 시기가 그것이다(Dupuy, 1989).

아이티 경제는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성격들을 지니고 있다. 아이티 경제에서 1차 산업의 중요성은 PIB에서 농업이 33% 이상을 차지하고 수출의 34%를 차지하는데 나타난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60% 이상의 경제인구가 아직도 농촌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력의 발전은 아주 낮고 전자본주의적 — 생산관계(봉건적·반식민지적)가 사회구성체의 성격을 이루고 있다. 1945~1968년도 세계자본주의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 동안에 라틴아메리카 경제에서 일어난 자본주의 침투는 아이티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수도 주변의 수출자유지역설치(maquiladras)와 미국에서 온 대자본주의 유입으로 인한 70년대의 "경제혁명"도 아이티의 기본적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1929년의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800만 달라를 초과하지 않았다. 동일한 시기에 쿠바는 9억 1천 9백만 달라, 도미니카 공화국은 6억 9천 달라를 초과하였다(Castor, 1971:90).

〈표 4〉 산업별 고용구조 1983과 1988

	1983		1988	
	1000명 단위	%	1000명 단위	%
동업	1,228.3	65.1	1,184.8	66.2
광산	19.3	1.0	17.6	1.0
제조업	121.7	6.4	115.5	6.5
건설	22.2	1.2	22.4	1.3
상업, 요식업, 호텔	286.9	15.2	260.7	14.6
교통, 통신	16.3	0.9	16.6	0.9
전기, 가스, 수도	2.1	0.1	2.9	0.2
금융부문	3.9	0.2	3.6	0.2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ffice, *Yearbook of Labour Statistic*; EIU Country Profile,1994~1995, p.38.

아이티 농업생산구조는 봉건적이고 반식민지적 생산관계가 아직도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공존하고 있으며, 생산력의 저조한 발전, 중산층의 국제무역에의 종속 등 농업생산의 잉여는 소수의 자본가, 대부재지주, 농촌의 반부르주아, 수출업과 대규모 농업산업에 개입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빈약한 부르주아들에 의하여 독점되어졌다. CEPAL의 한 연구에 의하면, 자본가는 전체인구의 1%에 불과하나 전국토의 50.9%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티 경제는 기본적으로 아주 원시적인 농업 특히 커피, 사탕수수 그리고 식용작물에 기초를 두고 있다(표5 참고). 여기에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이 높은 실업률과 듀발리에 독재에 의한 "사회적 안정" —무덤의 평화— 을 이용하여 아이티 민중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낮은 임금과 세금면제를 통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고 있었다.

〈표 5〉 농업생산의 변화, 1979~1992

국내생산	1979~81 평균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옥수수	179	175	202	196	163	145	100
수수류	121	110	146	133	68	70	50
쌀	119	120	121	124	130	120	90
콩	51	50	56	55	56	55	45
설탕	2,953	3,000	3,000	3,000	3,100	3,100	2,700
바나나	217	250	230	225	235	220	180
고구마	276	380	370	339	380	380	300
수출품							
커피	39	30	32	33	37	37	30
목화면	2	2	2	2	1	1	1
코코아	3	3	3	3	5	3	3
육류							
쇠고기	25	34	34	35	34	32	25
돼지고기	22	15	16	18	18	17	15
닭고기	6	15	16	17	17	16	15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Production Yearbook,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IU Country Profile,1994~1995, p. 40에서 재인용.

19세기말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정치적 근대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이티의 근대적 변화를 위한 운동은 1915년~1924년 미국의 침략으로 중단되었었다. 아이티는 세계대전 이후 노동의 새로운 국제적 분업과 일치하는 세계 경제의 일부가 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이티 자본주의가 농업경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역사적 원인이 되었다.

2. 80년대 아이티 사회구조변동의 특징

아이티의 산업화는 60년대 말부터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80년대 듀발리에 2세에 의하여 "경제혁명단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국제

경제기구와 협력단체는 아이티에서의 놀라운 산업화 증가추세를 강조하였다. 사실상 아이티 사회형성에 있어서 최근의 산업화가 가져온 영향력은 아직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산업성장이 아이티 경제의 주변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80년대 중반당시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70~80년대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노동력의 해방" 특히 "비농민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주요한 두 가지 특징으로서 "내외 이민"(migracion) 현상과 "프로레타리아의 증가"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Stepik, 1982: Corten and Duarte, 1995).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아이티를 "제2의 뿌에르토 리꼬" 또는 "제2의 대만"(el taiwan caribeno)으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현대 아이티 자본주의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되어질 수 있으며 듀발리에체제의 위기도 바로 이러한 변화의 표현이다. 최근의 민주화 위기도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초의 산업화과정의 일부로 이해하여야 한다. 70년대에 아이티 자본주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직면하였다. 1972~1974년을 시점으로 미국경제와 서방자본주의의 위기는 국제자본의 새로운 전략을 구성하게 되며 이것은 산업재구성 또는 노동의 새로운 국제분업, 다시 말해 생산적 자본의 국제화로 표현되었다(Pierre-Charles, 1987).

아이티 경제의 두 가지 기본적인 자원인 토지와 인구는 그 사용을 방해하는 농업구조에 의해 직면하고 있었다. 비록 인구의 3/2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국민총생산에 대한 농업의 기여는 미비하였다. 수출 가능한 식품생산의 지속적인 감축은 근본적으로 수출의 전체물량을 감소시켰으며 국가의 총생산 자원을 감소시켰다. 예를 들어 주요한 수출품인 커피생산은 놀라울 정도로 감소하였다. 동시에 증가하는 인구는 토지없는 농민대중의 수를 증가시켰다. 토지의 황폐화는 경작가능한 토지의 양을 감소시켰으며 회복할 수 없는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 초에 농촌사회의 불안정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생산체계의 구조적 허약성은 국제시장의 변동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하였다. 이 허약성은 외부의 지배와 종속을 강화시켰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하였으며 국가예산의 반 이상을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수준에 다다르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융자본의 영향력은 모든 국가적 결정에 개입할 정도였다. 생산구조의 퇴보, 권력층의 비효율성과 부패는 25년 이상의 새

로운 형태의 복종을 강화하였다. 농업인구가 전체고용구조의 63%를 차지하나 단지 GDP의 28%만을 담당한다. 이와 반대로 수도를 중심으로 집중된 제조업 산업에는 전체인구의 6%만이 고용되어 있으나 이들이 GDP의 15%를 담당한다(Bryan, 1995: 68).

역사적으로 아이티의 조립산업은 스포츠화, 인형, 전자제품, 약품과 같은 상품을 미국시장에 제공하여 왔다. 고용의 측면에 대하여 세계은행과 아이티 주재 미국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980년대에 약 6만 명을 고용한 200개의 조립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보고하였다(Farmer, 1994:117). 이들 공장은 대부분 수도권 주위에 위치하며 1980년 당시 수도권 인구의 1/4을 흡수하고 있었다. 아이티는 미국에 동아시아의 조립공장지역(대만, 홍콩, 한국)의 저임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1987년에 130개의 조립공장이 5만 명의 아이티인을 고용하고 년 2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올렸다(Bryan, 1995:67). 최근 몇년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인 수많은 조립산업(industrias ensambladoras) 또는 마킬라도라 산업(maquiladora)이 아이티로 이전하여 왔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저임금의 여성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특히 아이티의 조립산업은 전자제품, 장난감, 스포츠용품, 의류품의 미국시장을 위하여 생산하였다. 이들 기업의 노동자들은 가혹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매일 12시간 노동에 1.30달러(1000원미만)를 받으며 그 어떠한 사회보장 또는 혜택도 없었다. 동시에 국토의 모든 천연자원은 모두 해외로 유출되었다. 아름다운 천연 해변은 프랑스, 카나다, 미국자본의 호텔기업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 관광 서비스 산업은 아이티 GDP의 40%를 차지하나 정치적 불안으로 감소하였다. 1989년에 20만명의 관광객이 아이티를 방문하였다면 1992년에는 2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Ferguson, 1993).

3. 국가의 위기와 헤게모니의 분열

듀발리에 독재는 아이러니 하게도 1952년에 자유선거를 통하여 시작하였다. 1915~1934년 이후 20년간의 정치적 불안정 뒤에 파파독(Papa Doc)은 아이티의 가난한 대중들에게 사회적 진보와 민주적 권리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1964년에 그는 국민투표에서 그 자신을 "종신 대통령"으로 수립하였으며

그에 대한 모든 반대세력은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1971년 그는 죽기전에 그의 아들 장 클라우드(Jean-Claude)에게 절대권력을 양도하였다. 파파독은 19세의 그의 아들을 종신 대통령으로 임명하였으며 그의 아버지보다는 덜 잔인하였으나 엄청난 부정과 경제적 부패를 기록하였다. 1986년 베이비독(Baby Doc)의 몰락은 전혀 예기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정권의 말기 징조는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권의 허약성은 주로 아들의 정치적 실천이 아버지의 정치적 실천과는 다른 방법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파파독이 아이티의 전농촌에 대하여 군, 경찰, 지지자를 효과적으로 엮은 네트웍을 수립하였다면, 베이비독은 수도의 소수 물라토를 중심으로 한 도시경제엘리트의 지지에만 의존하였다. 소수 물라토 계층과의 이러한 동맹은 파파독의 반물라토정책으로 이익을 취해온 다수흑인계층에 의하여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다(Dupuy, 1992:123~124).[10] 파파독은 농촌의사와 인류학자 출신으로서 농촌사회의 복잡한 사회학적이고 문화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지지층과 힘의 기반은 아이티 대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크레올(creole)을 말하는 농촌의 부두종교의 신봉자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도시에서 자라나고 도시의 삶에 익숙해 있었으며 아이티의 농촌은 거의 알지 못하는 그래서 "Port-au-Prince(수도)의 공화국(아이티의 여의도 공화국)"만을 알고 있었다(Ferguson, 1994:74).

국가기구의 부패와 고객주의로 부를 축적한 새롭게 상승한 농촌의 흑인중산층으로부터 권력과 지도력이 전통적인 도시엘리트로 이동하는 것은 이전의 전통적인 듀발리에 지지자들에게 불만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동시에 베이비 독은 미국의 지지와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갈망에 대한 외부의 압력에 만족하여야 했다. 파파독의 미국과의 관계는 1960년대를 통하여 긴장관계에 있었으며 상호불신은 유일하게 독재자의 반공산주의 노선에 의해서 구원되어졌다. 그러나 베이비독과 그의 경제 자문관들은 아이티의 저발전한 경제를 "대만화"하려는 시도로 70년대 동안 미국의 중요한 투자를 유치하려고 미치

10) 물라토주의(mulatriste)는 모든 진보한 문명한 인종적 혼합의 산물이다. 아프리카는 이 위대한 이민의 흐름밖에 있었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남았다. 물라토는 혼합의 산물로서 유럽에 더 가깝다. 따라서 보다 진보적이며 아프리카에 가까운 흑인보다 더 진보적이다. 이와 정반대로 반물라토주의인 흑인이데올로기(norrsite)는 아이티역사를 흑인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물라토가 아이티 빈곤의 원인이며 이들은 모든 공공권력에서 제외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듯이 노력하였다. "아이티 경제의 대만화" 프로그램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정치적 개혁과 인권에 대한 카터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1976~1979년 사이 '자유화'의 시기가 일어났다. 따라서 듀발리에주의는 원래적 의미에서 정권자체의 몰락 이전에 이미 중요한 변화를 거치고 있었다. 1980년대 동안에 전투적인 흑인민족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파파독이 실천한 개인숭배는 보다 실용적인 정부의 체제로 이행하였으며 파파독의 고립주의적 지지자보다는 미국정부의 지원과 전통적인 경제엘리트의 지원에 갈수록 의존하기 시작하였다(Ferguson, 1994:75).

베이비독은 정치적으로나 지적으로 그의 아버지보다 성숙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누렸던 존경과 권위와 복종을 누리지 못하였다. 체제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에 듀발리에주의는 어떠한 대중적 지지도 결여된 단순한 "장클라우드주의"가 되었다. 두 가지 현상이 베이비독의 허약한 체체를 결정적으로 붕괴하는데 기여하였다. 첫째, 1980년 5월의 베이비독이 물라토 출신의 백만장자 기업가의 딸인 미첼 베네트 (Michele Bennett)와의 결혼이었다. 이 결혼은 다수 흑인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독재를 지지해 왔던 정통적인 듀발리에주의자들의 의심을 받았다. 따라서 결혼은 정권의 원래 이데올로기인 반물라토주의(norisme)의 포기를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 사건이었다. 또 다른 결과는 기업가와 기술관료에 막대한 권한을 이행하였다. 파파독의 "농촌고립주의 정책"에서 "수출성장과 외국인투자형태"로 아이티 경제를 전환하는 주도권을 기업가와 기술관료에게 주었다. 소위 근대화 세력과 정통듀발리에 "공룡" 노선사이의 투쟁은 베이비독의 권력기반을 허약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1983년 3월 오랫동안 예고된 교황의 방문은 카톨릭 교회의 정치적 활동을 정당화하였다. "모든 것이 여기서 변해야 된다"라고 교황은 도착 즉시 선언하였다. 비록 카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배엘리트와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해방신학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사제와 평신도 그룹은 1970년 이후 급진적 사회변화를 위해 참여하고 있었다. 도시의 빈민가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던 소위 "작은 교회"(ti-legliz) 활동가들은 교황의 말씀을 정치적 활동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리하여 교회가 운영하던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솔(Radio Doleil)은 반듀발리에 국민감정을 일으키는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

요약하면 1980년대 중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경제요인이 결합하여 베이비

독의 권력기반을 약화시켰다. 국제 석유가격의 인상과 에이즈(AIDS)로 인한 관광산업의 붕괴는 베이비독 자신이 "경제적 단절"이라고 정의할 정도의 위기적 상황을 일으켰다. 에이즈 공포는 아이티의 관광산업을 붕괴시켰으며 이것은 아이티의 외화보유률을 극도로 감소시켰다. 1981년 미국의 질병센터는 아이티를 "가장 위험한 나라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국가경제의 취약함은 정부의 조직적인 국가자원의 낭비로 악화되었다. 아이티 보트피플(boat people)의 스캔들은 이 당시 시작하였다. 아이티의 가난한 농촌의 농민들이 플로리다로 탈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4년에 미국해군은 2,900명을 체포해서 아이티로 되돌려 보냈다. 이들 보트피플 탈출자는 1988년에는 4,614명, 1989년에는 3,368명으로 증가하였다(Farmer, 1994:119).[11] 정치적 영역에서 베이비독의 위치는 약화되고 있었다. 미국은 아이티정부에 헌법 개정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베이비독은 1985년 7월에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담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결과 98.8%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부정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이티의 가장 보수적인 언론도 이를 비난하였으며 베이비독의 인기 하락은 갈수록 증가하였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1986년의 최종 클라이맥스를 일으키게 하였다.

4. 아이티 시민사회의 성장과 라발라스(Lavalas)운동

1986년에 대중운동은 성장하였다. 1915년 이후 처음으로 대중의 사회적 민주화 운동이 기존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었다. 대중이 근대의 이익을 원하였다면 소수지배계급은 아이티 사회가 근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990년 12월의 선거에서 역사적 위기에 대한 대중의 응답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반동의 힘과 미래의 힘 사이의 결정적 전투였다. 소수 지배계급과 군부는 당시의 역사적 순간을 이해하지 못하였다(Castor, 1994:164). 전통과 일상성에 뿌리내린 엘리트 계층은 대의민주주의의 자유선거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주체가 사회질서의 변혁과정과 정치과정에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들은 대중의 참여가

11) 디아스포라에 있는 아이티인은 1990년 통계에 의하면 700,000~1,500,000명이라고 추정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의 도시(뉴욕, 마이애미, 몬테레알, 보스턴) 또는 카리브지역에 거주한다.

그들에 의한 권력통제와 부와 특권의 자원을 상실할 수 있는 위협으로 느꼈다. 민중의 정치적 참여는 지속적이었다. 모든 사회세력에게 지난 30년간 지속된 탄압의 폭력은 반독재의 감정과 투쟁력을 부르주아, 농민, 중산계층을 포함한 전 사회계층에게 불러 일으켰다. 이 전투는 듀발리에의 도주 이후 민주주의와 톤토마투(tontons macoutes)로 대표되는 구체제(ancien regime)세력과의 화해에 대한 전적인 거부로 이어졌다.

도시와 농촌 대중의 민주적 감정과 의식은 1983~1986년의 반듀발리에 투쟁이 확산되는 것만큼 성장하였다. 1986년 2월부터 독재의 가장 상징적인 기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자유의 공간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언론의 자유, 인권의 옹호, 교육행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 참여의 증가는 이 운동에 하나의 민족적 성격을 지니게 하였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에서 소외된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계층이 이 민주적 투쟁에 합류하였다(Pierre-Charles, 1992:560). 1987년의 헌법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1987년 11월의 선거에 대한 대대적 참여는 법치국가의 회복과 대의민주주의의 출현을 확립하려는 대중의 의지를 고양하였다. "민주 세력"이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다양한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이 결집하였다. 이들은 군부와 기득권 세력이 민주 선거를 실패하게 하려는 기도에 반대하여 연합하였다.

거의 30년 동안 아이티 사회는 폭력과 협박 앞에 굴종하여 왔다. 모든 사회적 세력은 권리회복운동을 지역적 또는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교체, 구조의 변혁, 가난과 불의의 거부, 행정의 탈중심화, 담론의 변화 등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발전과 참여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운동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여기에 사회운동의 역동성이 있었다. 대중은 체제의 전체성, 기능, 구조, 담론, 국제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존 체제는 재생산의 수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기존 체제의 덕으로 형성된 경제적으로 강력한 계층은 이제 더이상 체제를 갱신하기 위한 근대적이고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대안을 형성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국가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었다(Pierre-Charles, 1992:562).

듀발리에 체제의 붕괴는 사회의 필요와 시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력의 분명한 결과이다. 이 무능력은 듀발리에의 도주 이후 신듀발리에주의와 군부에 대한 시민투쟁에서 더욱 분명하여 졌다. 국가는 갈수록 그

의 권력, 조정, 정치적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갔다. 이 상황은 모든 측면에서 관찰되어졌다. 주민의 권리회복, 민주주의, 근대화, 정의를 갱신할 수 없으면서 국가는 그들의 기능들을 외국에 또는 직접적으로 강대국에 넘겨주려 하였다. 여기에는 정당들의 실패도 작용하였다. 듀발리에 독재기간 동안에 정당은 거의 유명무실하였다. 듀발리에는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하였거나 통제하였다. 정당은 이름뿐이었으며 선거용으로만 존재하였다. 따라서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반대로 대중운동은 존재하였으며 탄압과 망명 가운데서도 생존하였다. 독재자의 도피 이후 1987년 초에 이들 대중운동은 "민주화운동을 위한 전국회의"(Congreso Nacional de Movimientos Democraticos)를 소집하였다. 이들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대중운동과 정치세력이 하나가 된 보다 광범위한 "전국연합"(Frente Nacional de Concertacion: ENC)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 이들은 "변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연합"(Frente Nacional para el Cambio y la Democracia: FNCD)을 결성하고 아리스티데(Jean Bertrand Aristide)를 그들의 후보로 선출하였다(Aristide, 1992).

다른 한편 군부는 근대화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듀발리에 이후 미국에 대한 최대의 복종을 보여주었다. 26년에 걸친 톤토마투세력과의 공존관계는 군의 위상을 마비시켰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한 시민운동은 "듀발리에 없이 듀발리에 체제"를 회복하려는 군의 기도에 제동을 가하였다. 권위주의의 부활에 대한 시민운동의 단호한 거부에 있어서 민중의 구두언론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이것은 "비공식 정치"의 놀라운 승리였다. 시민의식의 성장은 농촌 조직에서 나타났다. 지역적이고 공동체의 문화적 성격을 지닌 이들 농촌 조직들은 아이티 시민사회를 강화시킨 연대와 참여를 구성하였으며, 대중의 정치적 역량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구정치권의 일방적 행동에 대한 응답의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켰다(Pierre-Charles, 1992: 565).

도시로의 농촌인구의 유입은 도시주민의 사회적 구조를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켰다. 농촌주민의 정치적 참여는 파업과 데모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정치적 문화적 교환이 일어났다. 농촌과 최근에 도시의 주변부로 이민한 주민의 힘은 그들의 정치적 투쟁과 정치문화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표출되어 졌다. 이러한 충동은 상업적 민족주의나 소비사회의 일방적 지시 또는 대중매체에 의한 근대주의의 변형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형성된 대중적 조직의 창조로서 사회조직에 대한 비

공식경제의 표현이었다(Pierre-Charles, 1992:566). 이런 의미에서 아이티의 민주화 혁명은 이들 "비공식 부문의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헤르난도 소토(Hernando de Soto)의 비공식혁명과 성격을 달리 한다.

이들 민주적 세력은 비공식부문을 통하여 대중운동의 동원과 조직을 전개하였으며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강력한 대중연합을 이끌었다. 많은 분석가들의 부정적 지적과는 달리, 오페라시온 라발라스(Operacion Lavalas)는 다양한 사회조직을 규합한 최대의 조직적 세력이었다. 농촌과 도시의 변두리에 확산되어 있던 작은 조직들의 네트워크, 민중조직을 통해 전개되고 있던 농촌운동, 개신교의 밑바닥 조직에서도 선택한 카톨릭교회의 기초공동체 운동, 민간조직에 의해 창출된 대중교육과 훈련의 네트워크, 도시의 가난한 주변부 주민들, 사회적 전문직업인들과 사적 부문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아이티인들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라발라스 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전국적 차원에서 새로운 대중조직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들이 아리스티데 운동의 성공을 보장한 사회역사적 기반이었다. 짧은 두 달간의 역동적 선거운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아이티 대중을 움직였고 국내의 전 대중을 동원하여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들 보잘것없는 대중들의 단합된 힘에 있었다(Pierre-Charles, 1992:568).

5. 민주화와 종교의 역할

카톨릭교회와 대중운동은 갈수록 권력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였다(Lampe, 1991). 1977년에 이미 아이티 성직자회(la Conferencia Haitiana de Religiosos: CHR)는 가난한 자에 대한 봉사를 신도들에게 권유하고 있었다. 1981년에 CHR은 사상과 제도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하였다. 1982년에 제1차 전국 심포지엄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선택"을 권유하였으며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악의 척결"을 요구하였다. 이 메시지는 1983년의 교황의 방문으로 더욱 고무되어 졌다. 1984년에 제1차 전국 기초공동체(Ti Kominote Legliz)회의가 "새로운 교회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다.

듀발리에 체제 당시 교회의 민간단체 운동(NGOs)은 세계교회 서비스(Church World Service)와 카톨릭의 구조서비스(Catholic Relif Service)의 공동체 발전 프

로그램에 제한되어 있었다. 처음에 이들은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과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의 부족 같은 상황에서 해외원조를 유치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그후 그들은 평상시에 공동체 발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듀발리에 정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자본을 끌어온다는 이유에서 이들의 활동을 허용하였으나 정부의 통제 아래 두었다. 그러나 베이비독의 시기에 와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베이비독의 시기는 아이티가 세계자본주의로 편입하는 개방의 시기이다. 이것은 국제자본의 활동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공동체 발전 등에 대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리건의 행정부는 발전전략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장려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민간부문은 단지 자본의 자유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의 활성화를 의미하였다. 여기서 "아이티 자원봉사자협회"(Haiti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HAVA)가 창립되었다. 동시에 국가로 집중하였던 해외원조는 이들 민간단체로 전환되어졌다. 이때부터 듀발리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듀발리에의 도피 이후 사회정치적 상황은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폭발은 수많은 형태의 대중조직을 일시에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 앞에 카톨릭교회는 그들의 전통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이중적 입장을 취하였다. 민간단체는 HAVA가 유일한 저항의 조직이 되었다. 하바는 1990년 9월 파리에서 개최된 저발전국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티의 전 민간단체를 통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망명객들의 귀환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인권과 시민교육 그리고 공동체적 발전을 위한 대중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구들을 형성하였다. 이들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아이티에서 변화를 원하는 유일한 대중조직이었다(Etheart, 1995: 117~121).

아이티의 정치적 과정은 종교적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아이티의 민중종교인 부두(Vodu)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두와 정치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간과하는 측면의 하나는 부두 비밀사회의 정치적 이용이다. 이것은 "아이티 정치의 부두화"의 일부를 이룬다. 다른 한편 부두교회는 그 자체의 안정을 위하여 정치 엘리트에 의존한다. "부두 교회의 정치화"는 기본적으로 부두교회의 부두사제를 그들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듀발리에는 이들 부두사제를 농민을 통제하는 "비공식 관료"로 이용하였다. 부두사제는 듀발리에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종교적 엘리트로 변신하고 있었다. 해방의 종교였던 부두종교가 억압의 종교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오랫동안 지배와 억압의 종교였던 카톨릭교회는 저항과 해방의 종교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아리스티데 현상"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 역할이 전이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Lagurre, 1989: 81~89).

듀발리에 부자의 세습독재(1957~1986)는 아이티 사회에 이중적 위기를 일으켰다. 그 하나는 서비스의 위기, 다시 말해 체제의 정치경제적 기능의 위기이며 다른 하나는 의미의 위기, 다시 말해 듀발리에 국가는 상식을 건설하는 데는 무능하였다. 권리 회복의 요구가 증가할수록 억압도 증가하였다. 극단적 빈곤의 상황은 듀발리에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거부를 불러 일으켰다. 이 상황은 삶을 위한 기본적 갈망을 요구하도록 이끌었다. 삶을 위한 투쟁을 제기하는 것은 듀발리에 체제가 아닌 다른 질서를 찾는 것을 의미하였다. 카톨릭 교회속에서 정의를 위한 민중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이다. 교회는 듀발리에 체제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았으며 도덕적으로도 정당화하지 않았다(Lampe, 1991). 교회는 듀발리에 독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철회하였으며 억눌린 자의 외침을 듣기 시작하였다. 1980년 성탄절 메시지에서 아이티의 주교단은 푸에블라 총회(1979)의 중심적 메시지를 재확인하였다. 아이티 교회는 듀발리에 질서를 죄악적 상황이라고 단죄하였다. 오랫동안 듀발리에 체제와 전적으로 일치해 왔던 교회는 1983년 교황의 방문 이후 민중의 편으로 향한 변화를 가져왔다. 교회는 기존질서를 유지하려는 전통적인 역할대신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선택하였다.

V. 결 론: 요약과 전망

1. 요 약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80년대 카리브해의 구조변동의 성격은 무엇이며 사회운동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를 뿌에르토 리꼬와 아이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카리브지역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의 세계적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정치구조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났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주로 구조변동과 정치체제의 변화, 노동의 국제적 이동과 도

시 비공식부문, 민주화와 사회운동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뿌에르토 리꼬의 경우 이 두 과정은 급격한 갈등과 저항없이 진행되어졌다. 경제적 측면에서 뿌에르토 리꼬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그리고 주변 카리브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신진보당(PNP)과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려는 인민민주당(PPD)의 대립구도에서 신진보당이 일단 승리하는 국면을 맞았으며 "독립노선"(PIP)은 아직은 대중적 노선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아이티의 경우, 이 두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급격한 단절을 초래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아이티는 전통적인 농장경제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제적 근대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정치적 측면에서 구지배층의 저항을 받았으며 지배 헤게모니 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자본과 국가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고 국가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헤게모니의 공백기에 노동의 연합이 일어났다. 아리스티데의 선거혁명은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 노동의 연합된 투쟁의 결과였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변화가 두 나라의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으나 대응양식은 상당히 다르다. 뿌에르토 리꼬의 경우 경제구조의 변화는 커다란 저항없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아이티는 이러한 변화요구에 대한 국내 지배세력의 불일치로 대안 없는 파국에 직면하였으며 이것은 오랫동안 억압받고 제외되어 왔던 민중세력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였다.

이 두 나라 사이의 공통점을 든다면 노동인구의 국제적 이동일 것이다. 아이티의 가난한 이들이 뿌에르토 리꼬로 몰려든다면 뿌에르토 리꼬의 가난한 이들은 미국의 뉴욕시로 몰려간다. 노동의 새로운 국제적 분업이 가져온 국제이민의 새로운 성격이다. 이들 외국 이민자들은 주로 도시비공식부문의 직종에 고용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2. 전 망

21세기 카리브해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뿌에르토 리꼬는 미국의 51째 주로 합병할 것인가 아니면 자치연합국가의 현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극적인 독립을 요구할 것인가? 아이티는 민주화를 정착시켜 새로운 정치문화와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80년대의 경제구조의 변화는 자본이 주도적 역할을 취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출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본과 노동과 국가의 관계는 균일하지 않았다. 뿌에르토 리꼬는 노동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힘이 보다 안정적이라면 아이티의 경우에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는 재구조화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오랜 동맹관계는 대안없는 단절을 초래하면서 강력한 노동의 단합된 힘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리스티데의 당선은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노동부문이 자본과 국가사이의 내부적 조정이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초래한 헤게모니의 공백상태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91년 9월의 군사 쿠데타는 구지배계급의 극단적 대응형태이며 이들의 물리적 독점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재구성을 제한할 것이나 시민사회의 팽창을 결정적으로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분간 기득권의 일부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정치적 구조변화를 관망할 것이다. 포스트 포드주의 또는 후기자본주의로 규정되는 현재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자본은 거대한 국가의 통제력보다 노동과 시민사회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이 보다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뿌에르토 리꼬의 경우 자본이 한발 앞서 가고 있다면 아이티는 노동이 기회를 포착하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강석영, 「카리브해 도서국들의 구조와 특성」, 『중남미 문제연구』, 제8권, 1992.

민만식, 강석영, 최영수, 『중남미사·중남미 근현대 정치사』, 서울:민음사, 1993.

Aristide, Jean Bertrand. *Aristide, An Autobiography*, Maryknoll: Orbis,

1992.

Bryan, Anthony T. "Haiti: Kick Starting the Economy", *Current History*, February 1995.

Caban, Pedro A. "Industrialization, the Colonial State, and Working Class Organizations in Puerto Ric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1(3), 1984.

Castor, Suzy, *Puerto Rico: Una Crisis Historica*, México: Ed. Nuestro Tiempo, 1971.

Castor, Suzy, "Democracy and Society in Haiti: Structures of Domination and Resistance to Change", en Susanne Jonas and J.McCaughan(ed.), *Latin America Faces the Twenty-First Century*, Colorado: Westview, 1994.

Coraggio, Jose Luis y Carmen Diana Deere(Coord.), *La transicion dificil: la autodeterminacion de los pequenos paises perifericos*, México: Siglo XXI, 1986.

Corten, Andre and Isis, Duarte. "Five Hundred Thousand Haitians in the Dominican Republic",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2(3), 1995.

Cruz, Juan Hernandez. *Los inmigrantes indocumentados dominicanos en Puerto Rico: realidad y mitos*, San German: Centro de Publicaciones, Universidad Interamericana de Puerto Rico, 1989.

Charles, Gerard Pierre. *El Caribe contemporaneo*, México: Siglo XXI, 1987.

Charles, Gerard Pierre. *Capital transnacional y trabajo en el Caribe*, México: Plaza y Janes, 1992.

Dahlberg, Betty Sedoc. *The Dutch Caribbean. Prospects for Democracy*, New York: Gordon and Breach, 1990.

Denis, Manuel Maldonado. *Puerto Rico-Estados Unidos: emigracion y colonialismo*, México: Siglo XXI, 1976.

Dominguez, Jorge, Robert Pastor and R. Delisle Worrell, *Democracy in the Caribbea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Duany, Jorge. "El sector informal y la migracion internacional: El caso de los dominicanos en Puerto Rico", *Nueva Sociedad*, marzo-junio, 1991.

Duany, Jorge. "El impacto de la inmigracion extranjera en el mercado laboral de Puerto Rico", *Homines*, 17-1, 1994.

Dupuy, Alex. *Haiti in the World Economy: Class, Race, and Underdevelopment Since 1700*, Boulder and London: Westview, 1992.

Etheart, Bernard. "La democracia participativa en Haiti: La experiencia de las organizaciones no gubernamentales", *Estudios Latinoamericanos, Nueva Epoca*, 2-3, 1995.

Farmer, Paul. *The Uses of Haiti*, Monroe: Common Courage, 1994.

Ferguson, James. "Haiti: from Dictatorship to Dictatorship", *Race & Class*, 30(2), 1994.

Fernandez, Ana Selman. "La emigracion ilegal de los dominicanos hacia Puerto Rico", *El Caribe Contemporaneo*, enero-junio 1990.

Garcia, Emilio Pantojas. "Reflexiones criticas en torno al uso del concepto de dependencia como categoria explicativa en el analisis del proceso de desarrollo en Puerto Rico", *Homines*, febrero-julio 1989.

Garcia, Emilio Pantojas. *Development Strategies as Ideology: Puerto Rico's Export-Led Industrialization Experience*, Rio Piedras: Editorial de la Universidad de Puerto Rico, 1990.

Grosfoguel, Ramon. "World Cities in the Caribbean. The Rise of Miami and San Juan", *Review*, Summer 1994.

Heine, Jorge and Juan M.Garcia-Pasalacqua. "Political Economy and Foreign Policy in Puerto Rico", in Anthony Payne Paul Sutton (eds.), *Modern Caribbean Politic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Lagurre, Michel S., *Voodoo and Politics in Haiti*, New York: St. Martin Press, 1989.

Lampe, Armando. *Descubrir a Dios en el Caribe: Ensayos sobre la historia de la iglesia*, San Jose: DEI, 1991.

Maldonado, Alex W., "Sobre las elecciones de 1984 en Puerto Rico", *Homines*, 9-1, 1985.

Marinez, Pablo. "El intervencionismo norteamericano en el Caribe: Aspectos militares, politicos,economicos y sociales", en *America Latina: entre los mitos y la utopia*, Salamanca: Ed.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1990.

Payne, Anthony, and Paul Sutton(eds.). *Modern Caribbean Politic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Petras, James, Miguel E. Correa. "La crisis en las economias de mercado, colectivista y mixta: Puerto Rico, Cuba y Jamaica," en *Capitalismo, socialismo y crisis mundial*, Madrid: Ed.Revolucion, 1984.

Petrovich, Janice y Santa Laueano. "Toward an Analysis of Puerto Rican Woman and the Informal economy", *Homines*, 10(1), 1986.

Rivera, Angel G., Quintero. "Soberania y cotidianidad: Las contradictorias perspectivas de las practicas democraticas en Puerto Rico", en Pablo Gonzalez Casanova y Marcos Roitman Rosenmann(Coords.), *La democracia en America Latina*, Madrid: Editorial Complutense, 1992.

Rivera, Marcia. "Puerto Rico: Mas de un reflejo en el espejo", en *Sitemas politicos. poder y sociedad*, Caracas: Ed. Nueva Sociedad, 1992.

Rogozinski, Jan. *A Brief History of the Caribbean: From the Arawak and the Carib to the Present*. New York: Meridian, 1994.

Sankatsing, Glenn. *Las ciencias sociales en el Caribe: un balance critico*, Venezuela: Ed.Nueva Sociedad, 1990.

Santiago, Ruben Davila y Beruff, Jorge Rodriguez. "Puerto Rico. Frente a la nueva epoca", *Nueva Sociedad*, septiembre-octubre 1993.

Selser, Gregorio. *Documentos de Santa Fe I y II*, México: Universidad

Obrera de México, 1990.

Serbin, Andres. El Caribe Zona de paz?: Geopolitica, integracion y seguridad en *El Caribe no hispanico*, Venezuela: Ed. Nueva Sociedad, 1990.

Stepik, Alex, "The New Haitian Exodus: The Flight From Terror and Poverty", *Caribbean Review*, Winter 1992.

Wallerstein, Immanuel. *Sistema mundial*, vol.1, México: Siglo XXI, 1985.

Welendez, Edgardo, "La politica economica de Puerto Rico: De operacion manos a la obra a la politica del Caribe", *Homines*, 17(1), 1994.